



북 큐 레 이 션

- 이달의 추천도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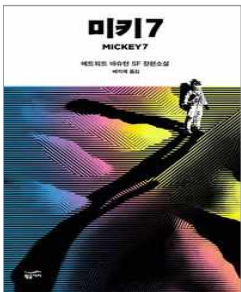
2026년
5월

꽃과 초록이 가장 빛나는 순간, 사소한 하루도 특별해지는 달 5월
- 영화로 만들어진 원작소설의 매력을 느끼며 -



지구를 구하기 위해 우주로 떠난 한 사람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나는 ‘절대 잊히지 않는 존재’. 이 소설은 과학소설의 외피를 쓴 채 공생과 연대, 종을 넘어서는 우정에 관해 “괄괄 솟는 이야기 샘물”을 퍼 나른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귀환을 포기한 ‘좋은 사람’의 선택은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인가. 한층 깊어지고 넓어진 앤디 위어의 세계 속에 그 답이 있다. 이 이야기는 분명, 책으로도 영화로도 오래 기억될 것이다.

앤디 위어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차기 SF 영화의 원작! 복제인간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한 사내를 주인공으로,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계급간의 모순을 파고든 SF 장편소설. 죽더라도 끊임없이 전임자의 기억을 갖고 복제인간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미키의 일곱 번째 삶을 소재로 SF의 재미와 철학적 주제를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에드워드 애슈턴 지음 / 황금가지



모래 행성 둔의 창조자 프랭크 허버트 SF계의 거장인 프랭크 허버트가 죽을 때까지 작업한 이 연대기는 제1부 둔Dune(1965), 제2부 둔, 메시아Dune, Messiah(1969), 제3부 둔의 후예들Children of Dune(1976), 제4부 둔의 신황제God Emperor of Dune(1981), 제5부 둔의 이단자들Heretics of Dune(1984), 제6부 둔의 신전Chapterhouse: Dune(1985) 총6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주 시대 3만 년의 인류 역사가 담겨 있다.

프랭크 허버트 지음 / 황금가지



클레어 키건의 대표작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다산책방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작가가 전작 『말겨진 소녀』 이후 11년 만에 세상에 내놓은 소설로,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의 은밀한 공모를 발견하고 자칫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선택 앞에서 고뇌하는 한 남자의 내면을 그린 작품이다. 키건 특유의 섬세한 관찰과 정교한 문체로 한 인간의 도덕적 동요와 내적 갈등, 실존적 고민을 치밀하게 담아냈다.

클레어 키건 지음 / 다산책방



고독하면서 아름답고, 잔인하면서 슬픈 이야기 걸모습은 평범한 60대 노부인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언어로 방역이라 부르는 청부살인을 업으로 하는 ‘조각(爪角)’의 사연을 담은 작품이다. 철저한 단절과 고독으로 유지되던 그녀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려냈다. 작가의 깊고도 단단한 시선과 능수능란한 문장은 극한의 아픔을 감추고 자동기계처럼 살던 여인이 노년에 접어들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에 맞닥뜨리게 되는 변화를 설득력 있게 그려낸다.

구병모 지음 / 자음과모음